변수 선택 기준은 n가지 부분에서 선정해 보았다.(추후 계속 추가될 수 있다.)

(법제 : 행정동코드, 법정동코드, 비행불가능한지역 여부)

첫째, 법제부분의 변수 선택 방법이다. 읍면동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국을 나누었다. 변수들에 따라 데이터를 구하는 기준을 법정코드 혹은 행정코드에 기반하여 구하였다. 또한 비행 불가능한 지역을 여부를 기존 법제에서 찾아서 변수에 추가하였다. 행정동코드는 2021년 8월, 법정동코드는 2021년 1월 데이터이다. (비행불가능한지역 : 범진님 데이터 설명 참고)

(사회경제 : 총인구수, 터미널유무, 건축면적, 세대 수, 공항여부, 건물종류)

둘째, 사회경제 변수 선택 방법이다. UAM은 다른 교통수단하고 연계하는 시스템(MaaS, Mobility as a Service)로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역이 있는 변수를 설정하였다. 터미널유무, 공항여부, 기차역여부(KTX역 포함)가 이에 해당된다. 건축면적의 경우 변수를 변경할 수 있다.(이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 후 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질 예정) 건축면적을 연속형(수치형) 변수로 쓸 시, 버티포트를 옥상(혹은 옥상 위)에다가 지을 경우를 고려해 조사하였다. 정부가 성숙형에 도입할 버티포트 크기를 산출해보면 약 15,000m^2 이상의 부지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어야 건물에다 지을 수 있다. 건축면적이 범주형으로 변환할 시, “15,000m^2 이상 부지를 가진 건물인가”로 변환하여 0,1로 구분할 것이다. 건물종류(ex : 이마트, 홈플러스…)로 데이터를 지정하고, 각 지정에서 대형상권들이 있는 것에 대한 여부를 개수로 표현하는 변수로 변환할 수도 있다.(A동에 이마트, 롯데마트 둘 다 있으면 2로 데이터를 입력) “총인구수” 변수는 읍면동 지역의 주민등록된 인구 수이다. ( 총인구수, 세대수, 현수님 데이터 설명 참고)

(교통 : 승용차, 버스, 혼잡정도)

셋째, 유동교통 변수 선택이다. 승용차, 버스 데이터의 값은 각 지역 연평균 얼마나 이동수단이 지나갔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혼잡정도 역시 그 지역의 교통혼잡을 수치화 한 지표이다. ( 승용차, 버스, 혼잡정도 현수님 데이터 설명 참조)